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JAMA

회개와 기도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가 오는 7월 1일(월)~5일(금)까지 텍사스에 있는 JAMA 글로벌 캠퍼스(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에서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YLC)를 연다.

이 컨퍼런스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계획됐다. 참가 대상은 금년 가을 9학년부부터 12학년으로 입학하는 고등학교생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월 15일까지 얼리버드 요금으로 499달러(음식과 숙박 포함)에 등록할 수 있다.

자마측은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역동적인 예배 세션, 영향력 있는 설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 기초를 강화해 주고 리더십을 개발해 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연결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독교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원 네트워크를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JAMA 홈페이지(www.jamaglobal.org/yjc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903) 804-4016 info@jamaglobal.com

유산 상속 세미나 은혜한인교회

은혜법률 및 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이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후견인 등 유산 상속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0일(일) 오후 2시부터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최재홍 변호사, 배영호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등이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은 "상속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면서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상속 관련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213) 369-0921, (562) 505-2528



남의 허물 꾸짖기 전에 자기 잘못 먼저 살펴야

우리 스님네들이 입산해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큰자는 형으로 삼고, 작은 자는 아우를 삼으라', '높은 소리로 침뱀지 마라', '웃짓을 해치고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지 마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간호를 잘 해라', '음식을 먹을 적에 찹찹 음식 씹는 소리, 후루룩 물마시는 소리를 내지 마라'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자기 몸 가운데 잘못됨을 항상 꾸짖고 고쳐 착한 데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만대장경의 '율장'에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허물은 열 가지도 넘기 마련입니다. 자기 허물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율장은 불문에 귀의했을 때 오계(五戒)를 설해줍니다. 오계는 '산 목숨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마시지 마라'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동업중생' 화엄경에 "일체중생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일체중생의 숙원하는 바를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 가히 다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풍요롭고 따뜻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려고는 아니하고 욕심 보따리만 안고 있진 않습니까? 마음 그릇을 먼저 비워야 물건이 담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극락을



가고자 한다면 욕심부터 버려라. 성불을 하고자 하면 욕심을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달라'는 소리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목숨이 짧은 사람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네 목숨이 길어질 것이다. 병든 자를 구원하면 네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복이 없는 자는 복덕 종자를 심어 베풀어라. 베풀면 온다. 결과의 열매를 스스로 거둔 것이다"고 윤리·도덕의 실천을 말씀 하셨을 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모든 것을 나눠 주리라' 처럼 '오너라, 준다'는 요행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만 많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법문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다'라며 지나치는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신경 써 악한 몇몇 사람을 교화시키면 이 사회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하는 사람이 윤리도덕

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발로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낼 것을 확 드러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발로참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 때 집안이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확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경을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실천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 잡을 이는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혀지 아니하면 영영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바른 소리만 하고,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그것이 부처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는 선구자가 돼야 하고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신 것은 그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 나셨을 테니까요.

-고산 스님-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래피 갤러리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